

## 몽골 내 한국학 전공 학생 접견

여러분 박수가 아주 따뜻하게 느껴져 기분 좋습니다. 비행기 타고 고비 사막을 내려다보며 그 옛날 누가 무슨 마음으로 이 사막을 넘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겁이 나서 중간에 길을 잃으면 죽을 수도 있는 끝없는 사막을 누가 왜 넘었을까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인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동으로 동으로 한국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고대 문명에 고대 스키타이 문화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샤머니즘도 그렇습니다.

사막을 보며, 1년에 1킬로씩 동진하면, 1만 년이 걸려 한국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에 1킬로씩 가면 10만 년 걸릴 것이고, 고대 출토물을 보면, 백만 년, 100년에 1킬로씩 동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고, 바라만 본 부분은 신화로, 미지의 세계로 남겨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거리를 걸어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난 용기가 없어서 못 갔지만, 그 사막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는 해가

뒀습니다. 아들도 미지에 대해 꿈을 가지고 가 봐야지, 가 봐야지, 한 세대 씩 가서 베링해도 건넌을 것입니다. 그 중 어떤 사람은 비단길로 빠져 중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어쩌면 유럽으로 가다 주저앉아서 한국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오는 동안 말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경제인들과 만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땅이 비좁아서 땅을 보면 환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비 사막을 내다보며, 그 땅을 보며 아까웠습니다. 저 땅을 샀으면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몽 경제협력위원장인 한 기업인이 몽골에 풍차발전기, 태양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일으켜 고비 사막에서 물을 뽑아 그 사막에 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농림부 장관도 왔는데, 왜 왔냐고 했더니, 가축 질병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더 중요하게는 나무 심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몽골에 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심은 건 비실비실하고 우리가 심은 건 튼튼하다고 합니다. 땅보고 탐났다고 했는데, 불순한 생각입니다. 대통령 마치면, 한국에서 몽골에 땅 1인당 1헥타르씩 빌려 나무 심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나무 심어 푸른 숲 만들면 인류가 이뤄낸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당장 돈은 안 돼도.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 보러 와라 하면 좋은 관광 상품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몽골과 한국은 함께 해야 합니다. 황사 때문에 못살겠거든요. 세계 각국 다녀보니, 문화 수준과 숲 수준이 비례합니다. 이제 내 나이에 순입니다. 이제 은퇴할 때인데, 이제 나무계, 숲계를 할까 합니다. 한국 사람은 원래 계 좋아합니다.

어제는 게르(몽골 전통식 주거형태)를 방문했습니다. 몹시 근사해서 나도 자그마한 것을 하나 사야겠습니다. 앙야바흐르 대통령이 선물로 준다 했는데, 그러면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천상 돈 주고 사야겠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꿈은 꿀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어떤 역사는 앞으로 가고, 어떤 역사는 뒤로 갑니다. 그 중에서도 대립, 갈등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평등과 자유가 모든 이에게 확대된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봅니다. 즉, 걸어 다니던 사람이 자동차를 타게 되고,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게 되고. 물론 이런 것만이 진보는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진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지배와 억압이 있다면 이 관계도 없어져야 진정한 진보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공동체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자유, 평등 원리가 보편적으로 존중되는 가치입니다. 공동체가 결국 인간을 마지막으로 포용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부족사회 넘어가면서 여러 개의 공동사회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진보의 수준이 같은 민족, 국가 안에서도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강대국이 타국을 일시 정복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처럼 장시간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복종의 문화에 익숙해서 수용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결국 우여곡절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평화와 공존이 세계 질서가 될 것입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화해 공존의 공동체, 그러면서 가치가 꽃피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몽골이 더 빨리 가까워질 것입니다. 몽골에서는 합동 경호원을 쓰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100년쯤 뒤엔 누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색깔이 다른 사람도 빠르게 섞여가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가치 공동체, 자유와 평화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갑시다.